

김은주

Theme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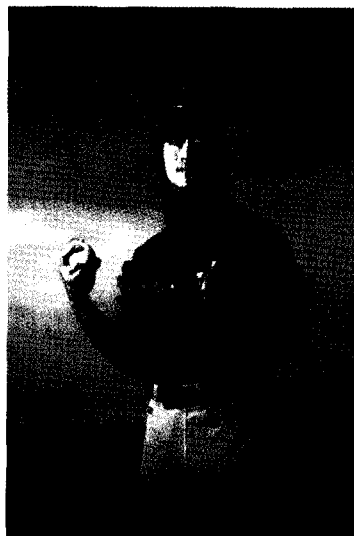
- 두번째 -

## 인물사진 Portrait

포트레이트 사진은 인물이 촬영된 장소와 주변의 소품을 통해 직업, 취미, 관심사에 관한 많은 것들을 함께 담아내며 손과 몸의 자세, 특히 얼굴의 경우는 상당히 심리적인 비중을 전달한다. 얼굴의 표정에 중점을 둔 포트레이트의 경우는 인물의 인격을 강렬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서로와의 교감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물을 탐구해야 한다. 또 마음의 창으로 대변되는 눈동자에 나타나는 표정을 세심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인물사진 포트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집자 주〉

## 포트레이트 사진의 구성 요소



©김동하



©김동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트레이트 사진에서 인물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포트레이트 사진은 인물이 촬영된 장소와 주변의 배경, 소품은 직업, 취미, 관심사를 알려주며 손과 몸의 자세, 특히 얼굴의 경우는 심리적인 비중을 전달한다.

특히, 얼굴 표정에 중점을 둔 포트레이트의 경우는 인물의 인격을 강렬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촬영자와의 교감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물을 탐구해야 한다. 또 마음의 창으로 대변되는 눈동자에 나타나는 표정을 세심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동엽

©이동엽

여러 사람을 함께 촬영하는 그룹 형태의 포트레이트는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해 최소한의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일렬로 세워 평이한 느낌의 사진보다는 공간적으로 다른 높이에 위치하도록

배치시켜 시각적인 흥미를 더할 수 있다. 또 트라이포드에 카메라를 세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며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포착하거나 동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포착해 흥미로운 포트레이트를 만들 수도 있다.



©김대현



©이동엽

### 빛을 통한 인물의 분위기 연출

빛은 사진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인물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야외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는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빛의 방향, 밝기, 색조를 통해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지 파악해야 한다.

실내의 창에서 들어오는 빛은 시간대와 창의 프레임의 모양 등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가느다랗게 창가로 들어오는 빛의 강도만으로 인물을 극적이고 신비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휴대용 플래시를 사용해 그림자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또 커튼이나 하얀 종이 등을 사용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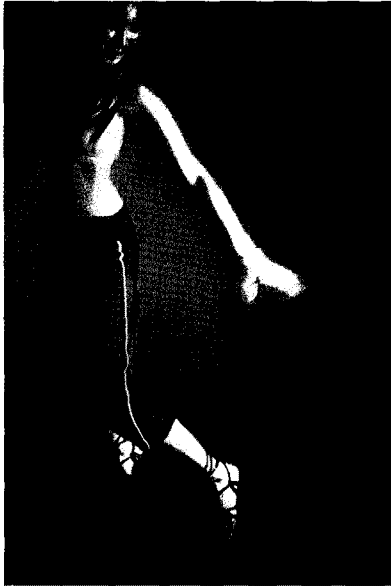
반면,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인물의 위치, 카메라의 앵글, 포즈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조명의 사용을 훨씬 신경써야 한다. 사진에 필요한 조명 중 가장 많은 빛을 공급하는 것을 주광원이라 하며 여러 개의 보조광원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광원은 거리와 크기에 따라 하드한 그림자나 소프트한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mbrella나 소프트 박스를 사용해 빛을 분산시켜 빛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때 인물의 얼굴에 떨어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여 조명을 이동시키거나 광원의 크기를 늘려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 김은주의 Theme Photo

김은주

Theme

Photo



©김은주

● 주광원(Key Light)

인물의 어디쯤에 주광원을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인물의 인상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정면광(Front lighting)은 인물의 정면에 위치하고 렌즈와 가까이 위치해 그림자를 거의 만들지 않으며 평면적이고 질감은 덜 뚜렷하다. 측면광(Side Lighting)은 카메라에서 약 90도 각도의 주광으로 촬영대상의 한쪽 면을 밝게 비추고 반대의 다른 면에 긴 그림자를 만든다. 측면 상방 광선(High 45 Lighting)은 카메라의 측면 상방 약 45도에 위치해 얼굴에 입체적인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 보조조명(Feel Light)

보조조명은 단일 광원만으로는 불가능했던 표현들을 만들어 준다. 그림자를 만들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얼굴의 윤곽을 뚜렷하게 해 주며 포트레이트에 깊이감을 더해준다. 때로는 반사판을 필 라이트로 사용해 얼굴의 그림자를 밝게 보정할 수 있다.

● 배경조명(Background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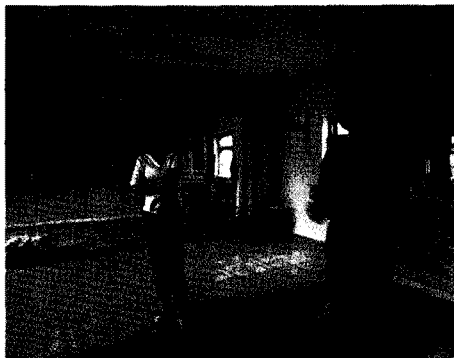
배경조명은 인물과 배경 사이에 톤의 차이를 제공해 깊이감을 더해준다. 또 젤이나 컬러필터를 부착해 새로운 색을 창조할 수 있다.

● 역광, 반역광(Rim Light, Kicker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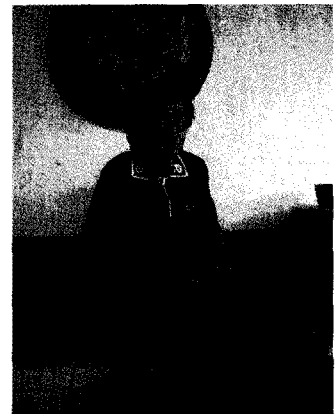
촬영대상의 뒤쪽에 위치한 조명은 헤어 라이팅과 어깨라인을 만들어 극적 재미를 준다.

## 배경과 소품에 나타나는 인물의 취향 사진

주변 환경을 포함한 포트레이트 사진에서는 그가 생활하거나 소속된 환경과 배경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적 상황과 지역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



©이동엽



©이동엽

의 포트레이트 사진에서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인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과 도시, 사무실,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배경에 포함된 소품은 대상의 생활양식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의 촬영은 스튜디오에서의 촬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또 인물의 직업이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은 인물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 교감을 통한 인물의 내면화 사진



©김대현



©김대현



©김대현

앞서 말했듯 포트레이트 사진은 인물의 내면적 모습과 외형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가 신뢰했을 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열어 보이며 바라볼 수 있다. 촬영 전 서로의 취미나 최근의 뉴스에 관해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친밀감을 형성해 인물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끌어내어 보자. 그러는 동안 카메라를 잠시 잊은 인물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담을 수 있다.

사진 제공, 김대현 [www.cyworld.com/andviva](http://www.cyworld.com/andviva)  
 이동엽 [www.dongyeuplee.com](http://www.dongyeuplee.com)  
 김동하 [goham97@naver.com](mailto:goham97@naver.com)



#### 김은주

수학과 국어를 좋아했던 유년시절, 사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중학교 때 발견한 듀안 마이클의 시퀀스 사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대학교에서 사진영상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그룹전에 참여했다. 한 동안 사진 전문 매거진에서 취재 및 사진기자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여러 형태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있다.